

광주시영재고, 첨단 시융복합지구...2027년 개교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부지 반영·위치·기반시설 등 개발계획 변경고시 AI집적단지·광주과학기술원 등 인근에 조성...인재 육성 사다리 완성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조성하는 인공지능(AI) 영재고등학교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복구 오픈동에 조성 중인 AI융복합지구(첨단3지구)에 광주AI영재고등학교 건립이 가능하도록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변경된 개발계획에는 AI 영재고 부지 반영(2만 3천138㎡), 산업시설용지 위치 변경, 기반 시설 계획 변경 등을 담았다.

AI 영재고는 복구 오픈동 468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만3천138㎡,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학습·연구동과 기숙사동을 갖춘다.

개교 목표는 2027년이며,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로 운영된다.

AI 융복합 지구에 AI 영재고가 건립되면 AI 산업 혁신생태계 구축과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할 인재 양성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I 영재고 주변으로 국가 AI 데이터센터, 실증·창업시설 등 AI 집적단지와 AI 지식산업센

터,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인재 양성 기관이 모이게 되면서, 광주시가 민선 8기 들어 집중해온 '인공지능 인재 육성 사다리'도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광주시와 정부는 예타 면제사업인 광주 AI 영재고 설립을 놓고 재정 부담 비율 이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지난해 말 국비 70% (611억원), 지방비 30% (260억원) 규모로 확정하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광주경제자유구역에 AI 영재고가 들어서면 인공지능산업과 교육이 상호 연결된 혁신적인 생태계가 구축되고, 지역의 미래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융복합 지구는 첨단 3지구 중 광주 복구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으로, 사업부지 111만㎡에 기업을 위한 산업 용지, 근로자를 위한 주거 용지 등이 조성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월 시 2025. 2. 15.(토) 11:00 |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새마을금고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클린하게"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5일 제1회 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15일 광주 북구 안보회관에서 마을금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1회 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홍보 캠페인을 열고 공명선거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드림만남의 날 행사서 일경험 상담하세요"

광주시, 시청 시민홀서 19일까지 310개 사업장 참여...직무상담 등

광주시는 "17~19일 사흘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참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드림만남의 날'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드림만남의 날'은 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드림터(참여 사업장)와 구직청년이 만나 일경험 상담을 하는 자리다.

행사에는 한국전력거래소, 광주신용보증재단, 한국알프스㈜, 해양에너지㈜, ㈜무등기업 등 공공기관, 지역 중소·중견기업, 창업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복지기관 등 310개 드림터가 참여한다.

드림터는 300여개 부스에서 사업장이 제공하는 직무 등에 대해 상담한다. 또 행사장에서는 광주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부스도 운영한다.

자세한 드림터 상담일정과 일경험 제공 직주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 (<http://gyouthdrea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은 광주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적성에 맞는 일경험과 급여, 직

무역량 강화 교육, 연계 활동 등을 지원하는 광주시의 대표적 청년일자리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드림청년'은 매칭된 사업장에서 주 25시간씩 5개월간 또는 주 40시간씩 3개월간 일경험을 하게 되며, 광주시 생활임금 수준(세전 169여만원~270여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7200여명의 청년이 참여해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장에서 직무역량을 쌓았다.

광주시는 올해 일경험에 참여할 제17기 드림청년 420명을 모집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19일까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에서 사전신청 후 '드림만남의 날'에 상담과 면접을 진행하고, 19일 밤 9시까지 누리집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오는 26일 광주청년정책플랫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과 광주시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김기숙 광주시 교육청년국장장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은 청년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진로를 탐색하며 자립으로 나아가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전국 최초 '기업탄소액션' 도입...온실가스 1638t 감축

〈배출권 모의거래제〉

지역 중소·중견 기업 12곳 참여 2030년까지 11% 이상 감축 목표

광주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역 중소·중견기업 참여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제인 '기업탄소액션'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1638t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기업탄소액션'은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배출권을 모의거래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국내외 시장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 사업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 지역 중소·중견기업 12개사, 한국에너지공단과 '기업탄소액션'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분기별로 3일간 배출권 모의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기업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3개년(2020년~2022년) 평균(4만5095.4톤) 대비 11%(광주시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산업부문 감축목표)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기업들은 매년 초 연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받아 온실가스를 감축해야하며,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면 매도를 통해 가상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부족할 경우 매입하게 된다.

2024년도 거래실적을 평가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4만3457.5톤으로, 3개년 평균 대비 총 1637.9톤 감축했다.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량은 소나무 1만1727그루 심은 것과 같은 결과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매년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달성률, 배출권거래 실적 등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 기업 표창, 탄소중립 선도기업 현판 부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진단과 개선방안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정현운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된 기업탄소액션은 광주시 2045년 탄소중립 달성과 향후 확대될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지역기업 경쟁력 확보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벼 재배면적 조정제 등 쌀값 안정화 대책 추진 방안 논의

정부양곡 효율적 대응 의견 교환

전남지역 1만 5800ha(헥타르·1ha는 1만㎡)의 벼 재배 면적 감축 계획과 전년보다 2.5% 떨어진 18만 8704원(80kg·5일 기준)의 쌀값 등 전남도의 올해 양곡 정책은 농민들의 주요 관심사다.

전남도는 지난 14일 이같은 점을 들어 대한곡물협회 전남지회에서 시·군과 '2025년 정부관리양곡 관계관 회의'를 열고 정부의 양곡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는 ▲2025년 쌀 수급 동향 및 대응 방향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후속조치 ▲정부양곡 재고 등 관리 ▲정부양곡관리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올 쌀값 안정화를 위한 수확기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2025년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선제적 수급 조절 등으로 수급 예측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남지역의 경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에 따라 감축해야 하는 면적이 1만 5831.4ha에 이르는 역대급 감축이라 농민들의 반발도 크다.

또 정부의 지난 쌀 수급 대책이 전혀 들어맞지 않아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만큼 정부의 율

해 쌀 수급 대책에 대한 불신도 팽배한 실정이다.

전남도는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후속 조치로 단백질표시 의무화, 가공류류 용도에 대한 단계적 정부양곡 공급 제한 등을 통한 민간 신곡 소비 촉진 등을 추진키로 했다. 오는 3월부터 추진되는 '2025년 정부관리양곡처리도급 계약'을 앞두고 관련 설명과 공장 및 보관창고 계약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전달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민 입장에서 쌀값 안정화 정책을 위한 현장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73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손자녀 돌보미 사업

신청 자격

1. 손자녀 6세 이하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
2.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가 쌍둥이, 세자녀 이상 세대
3. 손자녀의 부모와 조부모가 실제 광주 거주 아동 부모 중 1명은 아동과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4.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 평균 150% 이하인 세대
※ 휴직자(육아휴직 등)는 미취업자로 구분. 단, 출산휴가 기간은 가능
5. 조손가능한 자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여부 확인/조손가정증명서)
6. 서비스 이용기간 : 최대 3년

간단한 신청방법

직접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

- 방문 : 광주광역시 서구 경일로24. 여성단체회관 3층
- 전화 : 363-9401~2
- 팩스 : 363-9403
- 이메일 : cow9401@hanmail.net

문의처

(사)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 전화 : 062-363-9401~2
- 홈페이지 : <http://www.gcow.or.kr>
- 카카오톡 채널 : http://pf.kakao.com/_BKHCj?from=qr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소중한 우리아가 아플 때,
돌봐줄 누군가 필요할 때,
아동간병은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 대상** 병원에 입원한 만3개월~12세 이하 일반 아동 (신청당시 광주거주 3개월 이상된 일반 아동)
- 내용** 입원아동 간병 및 종합돌봄서비스 제공 (복약, 책임어주기 놀이·정서지원 등)
- 장소** 병원 입원실(통합간병병동 제외)
- 이용시간** 08:00~20:00
1일 최소 4시간 ~ 최대 12시간
★ 8시간 초과시 시간당 등급당에 7천원 추가
★ 한 아동당 연 200시간 예산범위내 지원
- 신청문의** 1899-5912, (062) 716-9405
- 팩스번호** 050-8094-5912